

한국전쟁의 파국과 순국자(殉國者)에 반하는 순애자(殉愛者)의 무/국적 신체들*

— 박경리의 『시장과 전장』에 대한 소고 —

공임순**

〈차 례〉

1. 『토지』의 전(前)미래 『시장과 전장』의 지식인 빨치산 서사
2. '지식인 빨치산'의 항방과 순애자의 탈주하는 신체성
3. 시장과 전장의 대위법, 인간다운 생존과 낭만적 환각의 대항(대안) - 비전
4. 순애자들의 응성거림과 고결한 휴머니티의 시계열화 - 결론을 대신하며

【국문초록】

이 글은 빨치산 서사의 잠재적 폭발력을 예증했던 1980년대와 1990년대 초의 '지식인 빨치산' 계보화가 『시장과 전장』에서 목도된다는 점에 착안했다. 이를 위해 이 글은 직선적이고 발전론적인 관점 대신 『토지』에서 『시장과 전장』으로 '거슬러 읽는' 독법을 택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제한된 관심사와는 달리 장덕삼이 새롭게 재조명된다. 그는 일제 말 학병에 지원했던 최윤국의 해방 후 버전과 가장 닮아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그의 '학병 - 북지(北地) - 연안(延安)'의 행로는 최윤국의 '학병 - 중국 - 팔로군'의 여정과 겹치며, 소위 지주(부르주아) 계급의 학병 출신 지식인 빨치산의 한 계열을 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 중요하게는 장덕삼이 낭만적 이상주의를 매개로 하기훈과 이가화의 낭만적 사랑을 추동하고 촉발하는 중개자로 위치한다는 점이다. 그를 경유해 하기훈은 비로소 이가화와 낭만적 사랑의 주체로 거듭날 수 있거니와 무엇보다 장덕삼의 전향과 변절의 대가인 "정

* 이 논문은 2019년 10월 12일 박경리 문학제 문학포럼의 '토지와 근대적 정치 담론'에서 발표한 것을 보완·수정된 것이다. 귀중한 발표 자리를 마련해주신 주최 측과 꼼꼼한 질의로 부족한 점을 지적해주신 토론자 선생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 말씀을 전한다.

**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

직한 동물”의 일차원적인 생존을 비껴가는 ‘인간의 얼굴을 한 지식인 빨치산 순애자’로 또한 남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차별화는 ‘시장’ 편외 남지영과 접점을 이루며 변주되는데, 그녀 역시나 적극적인 생존 투쟁에도 불구하고 남편 기석의 부재가 빚어내는 낭만적 사랑의 서사에 힘입어 장덕삼과 동류의 일차원적인 생존과는 가까스로 거리를 두기 때문이다. 남지영의 “저의 위치를 되찾을 권리”는 생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인간다운 생존’에 있음을 3장은 드러내 준다. 이 글은 생명 사상에 기댄 생존의 과도한 상찬이나 의미 부여가 고결한 휴머니티의 작용을 간과할 우려가 있음을 비판적으로 되짚는 한편, 인간다운 생존을 향한 이 순애자들의 고투와 인간힘이 낭만적 환각의 대항(대안) - 비전을 생성케 했음을 덧붙이는 것으로 4장의 결론을 갈음하였다.

[주제어] 『시장과 전장』, 박경리, 한국전쟁, 거슬러 읽기, 순국자, 순애자들, 고결한 휴머니티, 학병, 장덕삼, 지식인 빨치산, 탈주하는 신체, 대위법적 구성, 서정적 토속성의 대항(대안) - 비전

1. 『토지』의 전(前)미래 『시장과 전장』의 지식인 빨치산 서사

1990년 가을 『창비』의 『문화시평』은 그해 5월 15일에 개봉된 <남부군>을 다른 두 편의 영화와 더불어 다루고 있다. <남부군>이 영화화된 것이 1990년 5월이라는 사실이 새삼 새롭기도 하지만, 아직도 ‘빨갱이영화’라는 말이 아무렇지 않게 회자되는 지금 이 영화가 개봉된 당시의 반응이 놀랍도록 생생하게 담겨 있어서 흥미롭다.¹⁾ 이태의 1988년 작인 『남부군』을 2년이 채 안 된 시점에 스크린에 옮긴 정지영 감독의 <남부군>은 원작의 구체성과 복잡성을 살리는데 다소 아쉬움을 드러냈다는 비판적 평가를 한 축으로 “지나칠 수 없는” 진풍경으로 관객의 반응을 든다. 그것은 “2시간 40분의 흥미 위주의 오락물도 아닌 이 장편영화를 전국에서 1백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보고” 갔다는 고무적인 흥행 성공 때문이었다. “관음주의와 폭력, 상투적인 멜로”²⁾가 대세인 한국 영화의 전반적인 기조를 뒤집고, 흥행의 청신호를 보여준 <남부군>은 영화적 상상력에 대한 반성적 재고를 요한다는 것이었다.

1) 영화 <남부군>에 대한 일부 관객의 반응을 인용했다. 네이버(NAVER) 영화 리뷰 참조. 검색 일자 2020.09.15.

2) 안정숙, 『문화시평』, 『창작과비평』, 1990년 가을, 344쪽.

1980년대가 마감되고 1990년대가 막 시작되려 하던 즈음 <남부군>은 기존의 통념을 뒤집고, ‘빨치산’을 소재로 작품성과 흥행성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신개지를 열어놓았다는 평가이기도 했다.

영화 <남부군>의 개봉과 그에 따른 흥행은 1970년대와 80년대를 단속적으로 이어온 변혁 담론과도 무관하지 않았다. 식민과 분단 및 군사독재로 점철된 한반도의 역사는 실패한 역사였다는 도저한 상실감에 정초한 대항적 문제의식은 이른바 대문자 역사를 경합과 투쟁의 각축장으로 변모시켰기 때문이다. 이는 역사적 주체성의 위기에 상응하는 대항적 역사로 변혁 담론에 불을 지폈다. 공적 기억과 역사에 반하는 변혁 담론의 단속적인 모색과 개진 속에서, 위 문화시평의 표현대로 “현대사의 그늘에 묻혀 있던 빨치산들”이 우리와 같은 “민족으로 되살”(343)아나는 재현의 전복과 확장이 이루어진 셈이었다. 통칭하여 ‘빨치산’ 서사라고 일컬을 법한 이 신개지의 영역은 김현이 조정래의 말을 원용해 썼던 빨치산 문학의 가능성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었다. “팔만이 넘는 빨치산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싸운 예는 세계적으로 드문 일이며 그것을 문학화”한 것이 “『태백산맥』 1부”³⁾이었음을 주장하는 조정래의 ‘대답’에 기대 김현의 언급은, 빨치산 서사의 계보화와 더불어 변혁 담론과 맞물린 빨치산 서사의 잠재적 폭발력을 예증하기에 충분했다.

이처럼 빨치산 관련 서사와 재현 붐은 1980년대와 1990년대 초반을 달구었다고 해도 과히 지나치지 않다. 김복순이 『‘지식인 빨치산’ 계보와 『지리산』』에서 밝혔듯이 노동자·농민 중심의 민중 빨치산뿐만 아니라 ‘지식인 빨치산’의 계보화가 생성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었던 것이다. 이병주의 『지리산』을 기점으로 조정래의 『태백산맥』과 이태의 『남부군』이 뒤를 잇는 속에서, 지식인 빨치산들의 본격적인 등장과 아울러 이들에 대한 인간적인 형상화가 핵심 관건이 된다. 적/아의 전형적인 냉전 이분법의 전장 논리를 벗어나 휴머니티를 지닌 인물로 얼마나 적극적으로 구현되었는지의 여부가 또한

3) 김현, 『행복한 책읽기』, 문학과지성사, 1992, 281쪽. 김현은 『문학정신』 12월호 「대답」에 실린 조정래의 말을 빌려 『태백산맥』이 『토지』와 『장길산』을 훨씬 뛰어넘는 큰일을 했다고 지적한다. “『태백산맥』 1부가 책으로 묶여 나오면서 숨결이 튀어가지고 『남부군』이 나오고 『빨치산』도 나”을 수 있었다는 변혁 담론과 맞물린 빨치산 서사에 대한 기대와 긍정의 표현이었다.

지식인 빨치산의 계보화를 관통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병주의 『지리산』이 재조명되었으며, 일종의 리트머스 종이로 기능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병주의 『지리산』에서 보여지는 일제 시기에서 해방 이후로 쪽 이어지는 (좌익) 민족주의자로서의 인간적 풍모와 고뇌는 빨치산에 대한 이념적 금기와 억압을 뚫고, 이들을 역사의 한 주역으로 불러세우는 데 일익을 담당했기 때문이다. 빨치산이 될 수밖에 없었던 가혹한 역사의 시련과 심판은 마치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처럼, 인간의 얼굴을 한 지식인 빨치산의 새로운 형상을 새겨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⁴⁾

하지만 돌이켜보면 인간의 얼굴을 한 지식인 빨치산은 이병주의 『지리산』이 제일 처음은 아니었다는 데 생각이 미치게 된다. 김외곤도 일찍이 설파했다시피, 강파른 공산주의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깔고 있기는 했지만, 박영준의 『빨치산』에 등장하는 화자이자 주인공인 추일(본명 김형식)의 지식인 빨치산이 그러하거니와 무엇보다 전후 소설의 한계를 뛰어넘었다고 그가 곱평했던 『시장과 전장』의 하기훈 역시나 인간의 얼굴을 한 지식인 빨치산을 이미 현시한 바 있기 때문이다. “짐승같이 살육이나 일삼는 야만적인 성격의 인물이 아니라 인격을 갖춘 지식인 공산주의자”로서 하기훈의 등장은 “전후 세대의 소설에서 금기시되다시피 한 이데올로기 문제”⁵⁾에 육박해 했다는 김외곤의 설명에 따르자면, 『시장과 전장』은 이병주의 『지리산』과도 그 접점을

4) 김복순, 「‘지식인 빨치산’ 계보와 지리산」, 『인문과학연구논총』 22, 2000. 김복순의 선구적인 논문은 북한과 달리 빨치산 서사가 미약한 남한의 지식인 빨치산의 계보 형성이 마침내 가능하리라는 전망을 배태한다. 북한의 공식 국가사가 항일 빨치산 투쟁에 근거해 있음을 감안하면, 남북한 국가사의 이질성에 대한 문제의식도 담고 있다. 또한 이해령, 『빨치산과 친일파』, 『대동문화연구』 100, 2017은 식민지 근대성의 언설 속에서 친일이 협력으로 전화되며 친일파에 대한 과잉 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빨치산(파르티잔)은 국가의 독점적 폭력과 권력 행사의 부정적 음각으로 과소형상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비판적으로 논구한다. 두 논의는 모두 왜 빨치산이 되어야 했는가에 대한 인과적이고 인간적인 설명조차 검열에 휘말리기 쉬웠던 냉전의 최전선인 대한민국의 상황을 환기하며, 빨치산 문학이 지닌 문학·문화사적 가치와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1964년 공안정국이 몰아치던 때, 전작으로 출간되었던 『시장과 전장』이 ‘지식인 빨치산’을 주인공으로 삼았다는 점은 여러모로 이채롭다.

5) 김외곤, 「전후세대의 의식과 그 극복」, 『문학사와 비평』 1, 1991, 143쪽. 박영준의 『빨치산』에 등장하는 지식인 빨치산의 인간적인 면모에 대한 그의 지적은 날카롭다. 반공소설로 개괄되는 박영준의 『빨치산』은 하산에 초점을 맞출 경우 반공소설의 문법을 크게 벗어나지 않지만, 의식의 흐름을 따라 기술되는 주인공의 투항 과정은 그의 인간적 변민을 드러내는 데 일조한다.

형성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맥락에서 『시장과 전장』은 박경리 작품 세계의 완결판으로 흔히 말해지는 『토지』와 모종의 공통분모를 갖는다. 『토지』 제5부의 대단원에서 시사된 일제의 징집을 피해 지리산에 숨어들었거나 전선에서 탈출했던 지식인들의 해방 이후 행보와 관계된 빨치산 활동의 지속과 좌절이 그것이다.⁶⁾

박경리는 김치수와와의 대담에서, “『김약국……』 계열인데 아마 평론가들은 못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도시적인 계열로 『시장과 전장』이 있는데 『토지』에 와서 이 두 가지 계열의 작품이 합쳐졌다 할 수 있어요”⁷⁾라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남긴 적이 있다. 전술했던 두 작품 간의 상관성을 되짚게 하는 대목이다. 이를 이어받아 김윤식은 『토지』의 다음에 이병주의 『지리산』을 위치시키는 과감한 발상을 선보이게 된다. “『토지』의 외부가 학병으로 끌려간 최윤국이려면, 광복을 맞아 이 최윤국이 와세다대학 불문학 전공의 학병 출신 이병주로 변신해 그 날랜 손으로 쓴 것이 대하실록소설 『지리산』”⁸⁾임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방을 알리며 마무리된 『토지』의 이후를 이병주의 『지리산』에서 포착하는 김윤식의 독법은 다분히 학병 출신의 빨치산 서사를 염두에 둔 것이지만, 작중인물과 실제 작가가 별다른 매개 없이 합치되는 데 따르는 위험성이 없지는 않다.

따라서 연대기적이고 발전론적인 시각에 입각해 『시장과 전장』-『토지』-『지리산』의 순차적 궤적을 그리는 대신 ‘거슬러 읽기’를 한번 시도해보면 어떨까. 작가의 말마따나 『시장과 전장』이 『토지』와 맺는 친연성은 『토지』의 해방 이후를 『시장과 전장』에서 ‘거슬러’ 소묘할 수도 있겠기에 말이다. 무엇보다 『토지』-『지리산』의 축선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학병 출신의 지식인 빨치산에 있다면, 『시장과 전장』은 이 인간 군상의 일면을 전장과 시장에

6) 필자는 「(대하)역사소설 『토지』와 역사적 개인의 젠더 역학」, 『아시아여성연구』 57, 2018에서 김윤식이 명명한 ‘지리산의 사상’이 남성 중심의 젠더 기제에 정초해 있음을 밝혔다. 『토지』의 해방판이 쓰였다면, 이들을 중심으로 한 좌우익의 대결이 그러했으리라는 추정을 가능케 한다.

7) 김치수, 『박경리와 대화』, 『박경리와 이정준』, 민음사, 1982, 189쪽.

8) 김윤식, 『박경리와 토지』, 강, 2009, 262쪽. 이병주는 학병으로 중국 소주(蘇州)에서 일제 패망과 해방을 맞았다. 이 내력이 최윤국과의 비교를 가능케 하는 토대이다. 하지만 작중인물의 범주에서 보자면, 『시장과 전장』의 보조 인물 장덕삼이 최윤국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녹여내고 있기도 하다. 전장의 하기훈과 시장의 남지영에 결박된 시선을 돌려 하기훈의 보조 역할로만 여겨지곤 하는 ‘장덕삼’을 『토지』의 전미래(前未來)로 시좌에 넣는다고 할 때,⁹⁾ 그를 매개로 한 순애지들의 탈주하는 신체성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띠고 다가오게 된다. 한국전쟁의 파국 속에서 지극히 인간적인 얼굴을 한 지식인 빨치산과 전쟁미망인의 형상은 전장과 시장의 대위법적 구성을 추동하는 이 순애지들의 신체 역능에 힘입은 것이었음을 감안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이런 측면에서 비록 몇 장면에서 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장덕삼의 역할과 의미는 재평가될 필요가 있다. 이어지는 장들의 첫머리를 장덕삼으로 삼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할 것이다.

2. ‘지식인 빨치산’의 향방과 순애자의 탈주하는 신체성

“윤국이는 어떻게 안 나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시우가 말했다.

“본인의 의사였지. 뽀족한 대안도 없이 설득하려 했지만 완강했어. 도망을 다닐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어머니가 곤욕을 치르게 될 것이고, 훈련이 끝난 뒤 다행히 중국 쪽으로 가게 된다면 탈출할 기회가 있을지 모른다, 그러면서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대부분 중국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일본군을 남방으로 빼자면.”……

“나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 안 해본 것은 아니나 그렇지는 않아. 윤국이는 뭔가 확고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더구먼.”

“기회가 오면 팔로군으로 넘어간다 그겁니까?”

“그런 말은 안 했어. 그러나 중국이나 만주 방면이라면 전혀 발붙일 곳이 없는

9) 전미래(前未來)는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 진태원 옮김, 『법의 힘』, 문학과지성사, 2004, 196~199쪽을 참조하기는 했지만, 이 글에서는 철학적인 함의를 담은 복잡한 개념으로 쓰고 있지 않다. 작품 발표순으로는 『시장과 전장』이 『토지』보다 앞서지만, 『토지』에서 미처 말하지 못했던 해방 이후가 『시장과 전장』에 그려져 있음을 논하고자 이 개념을 원용했다. 『토지』의 압도적 성과에 경도된 시간상의 위계화는 나머지 작품들을 그 전 단계로만 사고하는 인식의 경직성을 낳는다. 이러한 선형적 시각을 탈피해 상호적이고 열린 텍스트로 접근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

것도 아니구.”¹⁰⁾

위 인용문은 『토지』의 한 장면이다. 최윤국의 학병 지원을 둘러싼 시우와 환국의 대화를 담고 있다. 맹휴를 주도하고 일본 동경 유학 중에 사회주의 비밀결사 조직에도 관여했던 윤국의 학병 행을 전하는 대리 진술이기도 하다. 당사자의 직접적인 발화가 아니라 환국을 통해 간접적으로만 제시되는 윤국의 학병 지원 동기와 이유는 다음의 말로 압축된다. “도망을 다닐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어머니가 곤욕을 치르게 될 것이고, 훈련이 끝난 뒤 다행히 중국 쪽으로 가게 된다면 탈출할 기회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학병을 피하기보다 지원하는 쪽을 택했던 윤국의 의도가 함축된 이 대목에 비추어 그의 향후 행보도 틀지어질 수밖에 없다. 그가 품었던 “확고한 생각”대로 중국 전선에서 탈출해 팔로군에 합류하든가 아니면 무위로 끝난 채 일본군의 신분으로 해방을 맞아 귀국하는 여정이 그것이다.

해방의 “4부까지는 의무적으로 써야 할 것 같다”고 했던 『토지』의 애초 구상에 따르자면, 최윤국의 해방 직후는 이 사정권을 따라 움직였을 여지가 크다. “『시장과 전장』에서 못다한 얘기들이 너무 많”¹¹⁾다는 질은 아쉬움 속에서, 『토지』와 『시장과 전장』 사이에는 말해지지 않은 공백이 발생한다. 정작 작품으로 화하지 못함으로써 초래된 이 공백을 뚫고 최윤국의 해방 이후를 예감케 하는 인물이 곧 『시장과 전장』의 학병 출신 사회주의자로 등장하는 장덕삼이다. 하기훈과 대화 도중에 토로하는 그의 지난 내력은 최윤국을 떠올리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학병으로 북지에 끌려갔을 때도 연안으로 탈출하는 꿈을 가지고 절망하지 않았습시다. 낭만이었죠. 확고한 이념보다……”¹²⁾는 ‘학병-북지(北地)-연안(연안)’의 궤적을 그리면서, 최윤국의 ‘학병-중국-팔로군’을 반향하게 된다. 그가 실제로 탈출에 성공했는지는 텍스트에서 밝혀지지 않지만, 이는 “북만주 별판의 눈보라 치는 길을 썰매를

10) 박경리, 『토지』 19, 마로니에북스, 2012, 245~246쪽.

11) 김치수, 『박경리와의 대화』, 앞의 책, 202-203쪽.

12) 박경리, 『시장과 전장』, 마로니에북스, 2013, 294쪽. 이후 인용은 본문의 면수 표시로 대신한다.

타고 달린”(90) 회상을 동반하며 석산 선생 부부와 함께 좌익독립운동을 했으리라고 추정되는 ‘전장’의 대표 인물인 하기훈과는 변별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최윤국의 해방 후 버전과 가장 닮아있는 장덕삼은 지주(부르주아) 계급의 학병 출신 사회주의자이자 한국전쟁의 와중에 하기훈과 경로를 달리해 지리산에 입산하게 되는 지식인 빨치산의 특정 형상을 텍스트에 새겨놓는다. 무엇보다 그는 “학생 시절에 연인을 생각하듯 코뮤니즘을 동경”하며 자신의 존재를 건 월북마저 감행했던 인물이다. 그는 자신을 포함한 “월북한 그 당시의 청년들은 모두 이상주의자들”(294)이었음을 강조함으로써 학병과 월북행의 근저에 자리 잡은 코뮤니즘에 대한 낭만적 열정과 이상을 상기시킨다. 그것이 또한 장덕삼을 규정짓는 기본 조건과 바탕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현재를 아우르는 자신의 과거를 혁명적 사상과 신념이 아닌 낭만적 이상주의로 채색한다는 점에서, 그는 “혁명가의 한 스타일을 동경하며 코뮤니즘에 접근해간” “소설적인 인물”(293)로 지식인 빨치산의 한 계열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이른바 낭만적 이상주의를 추구했다가 좌절해가는 학병 출신 지식인 빨치산의 극화된 형상인 셈이다. 이 낭만적 이상주의를 가로질러 그는 “중산 계급 출신은 대부분이 그렇게 출발했을 것”이라는 태생과 지위에 반하는 지식인 빨치산의 소외와 고독을 짙게 드리우며, 하기훈과 이가화의 낭만적 사랑을 추동하는 중개자로 또한 설 수 있게 된다.

“낭만적인 사고방식과 휴머니즘하고 큰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297)는다는 장덕삼을 매개로 하기훈과 이가화의 낭만적 사랑의 서사가 본격화된다. 하기훈이 미련 없이 떠나버렸던 이가화를 그의 곁으로 데려온 인물이 장덕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를 르네 지라르(Rene Girard)의 욕망의 삼각형을 빌려 이야기하자면, 주체와 대상을 매개하는 중개자로서 그는 하기훈의 욕망을 자극하고 유혹하는 세속적 가치의 담지자로 작동한다.¹³⁾ 주체의 대

13) 르네 지라르(Rene Girard), 김치수·송의경 옮김, 『낭만적 거짓과 소설적 진실』, 한길사, 2001. 르네 지라르는 욕망의 삼각형은 모든 소설에 내재해 있으며, 단지 은폐되거나 드러나 있는 차이만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외면적 간접화와 내면적 간접화는 주체와 중개자의 거리가 가깝고 먼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내면적 간접화의 양상이 크면 클수록 내면의 열정과 증오 및 파괴의 양상도

상에 대한 욕망은 중개자를 거치지 않고서는 고양되지 않는다는 지라르의 탁월한 견해가 알려주듯이, 주체인 하기훈의 욕망은 내면적 간접화의 중개자인 장덕삼을 통해 촉발되고 강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하기훈의 냉혹하리만치 차가운 이성이 장덕삼의 지배적 정념과 부딪히며 동요하는 이 욕망의 삼각형 구도를 따라 지식인 빨치산의 내적 모순과 부조리의 심연이 더욱 예각화되는 데, 아래와 같은 장덕삼의 항변이 그 단적인 발로라고 할 것이다.

나는 이들 성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지주의 아들입니다. 나는 대학을 나온 인텔리입니다. 문학을 탐독하고 마르크스주의에 열광한 나는 결코 노동자가 아니었습니다. 창백한 인텔리였으니깐요. 아시겠어요?……본능이 아니면 안 됩니다. 본능에 호소 없이 본능의 피로써 선택하지 않는 일이란 안 되는 것입니다. 로맹 롤랑의 이리떼의 비극은 영원히,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왜 말이 없으신지요? 물론 이 산은 연애하는 장소도 아니고 불평하는 장소도 아니고, 밥그릇을 허리에 차고 밤하늘을 보며 끊임없는 공포와 추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설령 약으로 달음박질치더라도 나는 정직하고 싶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에서 이것은 틀림없는 질서의 파괴자일 겁니다. 그러나 정말로 내가 파괴자일까요? 그 가련한 여인이 하기훈이라는 사나이를 찾아 이곳까지 오고, 또 그 소식을 듣고 이렇게 냉랭하게 앉아 있는 것을 나는 용납할 수가 없소. 당신들이 만나서 껴안고 울 수 있는 그 마음을 왜 거부해야 합니까? 스토익한게 무슨 뜻이 있던 말이요? 하 동무,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것이요.”(484)

하기훈을 향해 쏟아내는 장덕삼의 포효는 생래적인 계급적 속성과 특징(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비투스)을 여지없이 드러낸다. 그를 찾아 죽음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온 이가화의 헌신적 사랑을 외면하는 하기훈의 냉랭한 태도는 일고의 값어치도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하기훈의 냉정을 가장한 혁명가다움이 지닌 기만을 폭로하며, 그는 인간

이 지닌 가장 본연의 욕구와 감정을 왜 부정해야 하는지도 되묻는다. “악으로 치달아가더라도 나는 정직하고 싶”다는 장덕삼의 절절한 외침은 진짜 파괴적인 것은 자신이 아니라 자신을 “질서의 파괴자”로 낙인찍는 경직되고 비인간적인 공산당 조직임을 부각시킨다. 그의 이 같은 내적 고민과 격투는 하기훈에게로 고스란히 되 돌아온다. 그는 장덕삼과 동류의 부르주아 지식계급의 일원이자 석산 선생이 “자네는 공산주의 사회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네”라고 했던 “소설가적 인물”과 동계의 “자네는 시인이네”(89)의 이중 명예를 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¹⁴⁾ 따라서 “당신들이 만나서 서로 껴안고 울 수 있는 그 마음을 왜 거부해야 합니까?”라는 장덕삼의 반문은 하기훈의 억눌린 목소리의 발현이기도 할 터였다.

기존 논의에서 ‘전장’ 편의 핵심 서사로 말해지는 하기훈과 이가화의 낭만적 사랑의 서사는 기실 장덕삼이라는 인물 없이는 성립되기 어렵다.¹⁵⁾ 장덕삼을 경유한 하기훈과 이가화의 낭만적 사랑의 서사로 인해 전장은 그 이념적 적대와 충돌에도 불구하고, 부르주아의 자아 이상이기도 한 고결한 휴머니티의 짝을 띄우게 되기 때문이다. 비극을 예정한 이들의 낭만적 사랑의 서사는 전장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교란하는 일탈의 징후들을 새겨놓게 된다. 특히 이가화의 신체가 불러일으키는 연약하고 부드러운 식물성의 이미지는 살육이 난무하는 전장의 날카로운 금속성과 확연한 대조를 이룬다. 오직 자신에게 특별한 한 사람인 하기훈을 향한 그녀의 전적인 몰입과 투신은 상처받기 쉬운 그녀의 신체를 아주 예외적인 것으로 만드는 의미화의 장소가 되

14) 장덕삼이 자신을 소설가적 인물로 정위했듯이, 하기훈도 자신의 목소리는 아니지만 그의 지근거리 에 있는 석산 선생에 의해 ‘시인’으로 규정된다. 이는 장덕삼과 하기훈의 거리가 그리 멀지 않다는 방증이기도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석산 선생의 다음과 같은 말은 두 사람의 운명을 예감케 하는 텍스트상의 효력을 낳는다. “로맨티스트가 가는 길은 니힐이지. 시인은 모든 것을 사랑하지만 또 모든 것을 믿지 않아. 코무니스트는 모든 것을 사랑하지 않지만 완강한 믿음이 있지. 마치 예수쟁이가 하나님만을 믿는 것처럼. 그들은 이론이나 교리 형식에 미치지만 그 까닭으로 그 외 것에 사랑을 느끼지 못한단 말이야.……우리가 숨을 쉬어야 한다는 것, 우리의 영혼이 진실로 해방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뿐이야.”(89)

15) 『시장과 전장』의 낭만성에 대한 연구로는 김복순, 『『시장과 전장』에 나타난 구원의 문제와 여성의 인식 방법』, 『페미니즘 미학과 보편성의 문제』, 소명출판, 2005; 김양선, 『한국전쟁에 대한 젠더화된 비판의식과 낭만성』, 『페미니즘 연구』 8, 2008; 김미영, 『박경리의 『시장과 전장』에 나타난 낭만성과 숭고』, 『한국문예비평연구』 52, 2016 등을 꼽을 수 있다.

는데, 이를 주디스 버틀러(Judith Butler)의 용어를 전유해 표현하자면 ‘의미를 체현하는 육체’로 거듭난다고 할 수 있다.¹⁶⁾

가화는 다시 꽃을 꺾어 모은다. 눈이 젖어서.

“이무 희망도 없지…….”

“그래도 기뻐요. 전 행복해요. 이 세상에 나서 제일 행복한 날이에요.”

“그 꽃 꺾어서 뭘 하겠소? 신방을 꾸미려우?”

가화는 얼굴이 새빨개진다.

“이 세상 사람한테 다 주고 싶어요.”

“이 세상 사람한테 그 꽃을?”

하다가,

“이 세상 사람이 어디 있소 저 세상 사람들만 있는데.”

“네?”

가화는 이상한 눈으로 장덕삼을 바라본다.

“하긴……이 동무 한 사람만은 이 세상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492-493)

위 인용문이 드러내듯이, 그녀는 삶과 죽음이 판이하기 갈라지는 전장에서 하기훈이 살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병어리 같은 소리를 지르며, “꽃이란 꽃은 모조리 잘라서 사방에 뿌리고 흘는다.” 무슨 꽃이냐를 묻는 그녀의 바보스러운 질문과 해맑은 미소는 전장의 논리와 질서를 넘어서는 자리에 그녀를 ‘일순간’ 위치시킨다. 낭만적 사랑의 몰아와 합일이 빚어내는 이질적인 신체의 기입과 도래라고도 할 수 있다. 자신의 가족을 몰살했던 공산주의자들의 온상을 스스로 찾아든 그녀는 취약한 식물성의 신체를 지닌 채 전장을 규율하는 증오와 복수를 대신해 환희와 포용을 선보이게 된다. “희망이 있소? 무슨

16) 주디스 버틀러(Judith Butler), 김윤상 옮김, 『의미를 체현하는 육체』, 인간사랑, 2003. ‘의미를 체현하는 육체’는 번역의 이행 과정이 포함된 용어이다. 원문은 육체의 물질(질료)화에 더 가깝지만, 물질(질료)화 자체도 담론적 규제와 생산 및 배분의 장소임을 이 용어는 내포한다. 이 글은 이가화의 육체가 지닌 재성화(再聖化)의 양상을 드러내는 차원에서, 번역의 함의가 깔린 이 용어를 택해 쓰고 있다.

희망?”에 대한 엉뚱한 응답인 양 “그래도 기뻐요. 전 행복해요”라는 말에 이어 “이 세상 사람한테 (꽃을-필자 첨가) 다 주고 싶”다는 소박한 인정과 교감의 예외적 장면을 연출하게 되는 것이다.

가족의 몰살로 인한 ‘월남’(공산주의자가 없는 남쪽으로 피난)과 하기훈에 대한 사랑으로 인한 ‘월북’(산사람의 공간인 지리산 입산)을 한 몸에 떠안은 그녀의 신체는 분명 전장의 적대적 분할선과는 어울리지 않는다.¹⁷⁾ 하지만 이 불온한 월경의 흔적들은 낭만적 사랑의 서사로 변주되면서, 새로운 의미와 관계 갱신을 이루어낸다. 남과 북을 오간 그녀의 불온한 신체는 그 누구보다 한국전쟁의 트라우마를 깊숙이 내재하지만, 낭만적 사랑의 서사는 그녀의 이 불온한 신체를 전장의 논리를 초과하는 이탈과 향락의 신체로 되돌리기 때문이다. 그것은 전장을 틀 짓는 이념과 사상 및 국적을 횡단하는 불안정하고 주변적인 신체들의 향연이기도 할 것이다.

“가화 동무, 우린 진짜로 동무구면. 내 누이 같으다”(494)에 담긴 장덕삼의 오누이적 애뜻함은 이른바 부적절한 신체들끼리의 공감과 응원을 실어 나른다. 물리적 살해의 가능성으로 가득 찬 전장에서 이들은 사랑과 생존을 욕구하는 위태로움을 낙인처럼 안고 있는 인물들이기도 하다. 이 틈새에서 생겨나는 오누이의 유사 가족애에 정초한 동료 의식은 전장의 질서를 이탈하는 만큼 훼손하는 배반의 전조를 질게 드리우게 되는데, 왜냐하면 적/아의 이분법이 지배하는 전장은 우리가 아닌 자들을 적으로 간주하는 배반의 풍경을 일상화하기 때문이다.

17) 이가화가 남과 북을 오가는 월경의 신체성을 갖고 있다는 점은 주의를 요한다. 그녀는 전 애인에 의해 가족이 몰살당하는 비극 끝에 단신으로 월남했던 전력이 있다. 그녀가 공산주의자에 대해 철저한 반감과 증오를 내보인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은 대목이다. 그런데 그녀는 이 공산주의자들의 온상인 지리산의 입산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장덕삼을 따라나서는 이른바 월북에 상응하는 행동을 보여준다. 이가화의 두 차례 월경은 좁게는 분단과 전쟁의 트라우마를 낙인처럼 안고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극적 현실을 상징하며, 더 넓게는 원치 않은 폭력에 노출된 인간 본연의 취약한 신체를 극화한다. 박경리가 백낙청과 논전 중에 이가화를 “지나치게 가공의 인물”(『떡잎떡잎 읽고 갈겨 쓴 비평일기』, 손세일 편, 『한국논쟁사 II』, 1980, 68)이라고 이야기했던 바의 취지가 여기에 있다. 에마누엘 레비나스(Emmanuel Levinas), 김도형 외 옮김, 『전체성과 무한』, 그린비, 2018, 13~14쪽은 이가화의 실체화되지 않은 형상을 전쟁으로 중단된 삶과 타자의 얼굴로 현현하는 무한 응답으로 접근할 여지를 열어놓는다.

“악으로 치달아가더라도 나는 정직하고 싶”다고 했던 외침대로, 장덕삼은 체포 끝에 전향하여 “생명의 자유”(549)를 얻는다. 하지만 그것은 “정말 정직한 동물이 되고 싶소”(551)를 되뇌어야 하는 변절자의 삶(생존)이기도 하다. 그는 자신의 배신이라는 값(비)싼 대가로 하기훈과 이가화의 낭만적 사랑을 현실에서 실현하는 중개자로 끝까지 남고자 하지만, 이는 변절자의 표지로 인해 결코 성사될 수 없는 것이다. 산사람(공산주의자)의 자리를 등진 대신 그는 “산의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살려놓고 보”(549)겠다는 개체의 생존을 절대화하지만, 하기훈의 자조 섞인 말처럼 “자네나 내나 무엇을 다 잃어버렸”(551)다는 도저한 상실감을 피해갈 수는 없다.

이가화를 장덕삼이 전향해간 “너희들 세상”(549)에 합류시키려 했던 하기훈의 의도가 좌절된 후 “권총을 쥔 채 하늘을 올려다”(558) 보는 ‘전장’ 편의 대단원은 전장의 전우애와 개개인의 생존이 양립하기 힘든 비극적 현실을 재확인시킨다. 전장의 동료에 의해 사살된 이가화나 그 자신의 총에 쓰러진 산 사람은 지식인 빨치산으로서 하기훈의 자리를 급속하게 와해시키고 있다. 그가 선 자리의 무용함과 무력함은 전장의 육화이기도 했던 예전의 냉철한 거물 빨치산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음을 또한 반증한다. ‘전장’ 편의 대단원이 이가화의 죽음에 상응하는 그의 상징적 죽음을 예고케 하는 것도 이러한 연유에서이다.

낭만적 사랑의 서사를 직조했던 당사자로 하기훈은 파트너와 전우를 모두 잃었다. 이로 인한 비극에도 불구하고, 이가화가 죽음으로써 어떻게든 그를 생포하려 했던 장덕삼의 계획도 틀어지고 만다. 장덕삼의 전향을 뒷받침했던 “정직한 동물”로의 추락을 그만은 비껴갈 수 있었던 결정적인 장면에 다름없다. 지식인 빨치산의 존재 의미를 아무리 심문한다고 해도, 그는 전향과 변절이 아닌 “스토익”한 도덕과 지독한 순애자(殉愛者)의 탈주를 동시에 간직하는 인간의 얼굴을 한 지식인 사회주의자로 남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¹⁸⁾ “순

18) ‘전장’ 편의 대단원에서 이가화의 죽음을 이념적 경직성을 뛰어넘지 못한 하기훈의 자멸로만 돌아가는 것은 일면적이다. 하기훈이 장덕삼과 달리 산속의 전설로 남을 수 있는 것은 그녀의 죽음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이가화와 함께 하산할 때를 노려 하기훈마저 잡겠다는 장덕삼의 계획은 그녀의 죽음으로 실패로 돌아간다. 하기훈이 기존 지식인 빨치산과 다른 점은 투항으로 이념과 조

국자(殉國者)가 되기보다 순애자(殉愛者)가 되는 편이 낫겠소. 이 골짜기에서 총살을 당한다면 멋이 있을 게요”(496)는 오롯이 그를 향한 헌사였던 셈이다. ‘전장’ 편의 하기훈이 담지하는 이러한 고결한 휴머니티는 ‘시장’ 편의 남지영과 접점을 이루며 변주되는데, 이어지는 3장에서는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펼쳐진다.

3. 시장과 전장의 대위법, 인간다운 생존과 낭만적 환각의 대항(대안) - 비전

‘전장’ 편과 ‘시장’ 편을 구분하는 장 단위의 양적 기준을 참조하면, 『시장과 전장』은 ‘전장’ 편보다 ‘시장’ 편에 무게 중심이 가 있다. 총 40장 중 ‘시장’ 편은 22장으로 ‘전장’ 편의 18장을 앞선다. 이 때문에 『시장과 전장』에 대한 기존 논의도 ‘시장’ 편을 더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¹⁹⁾ 작품의 분량만이 아니라 무엇보다 ‘시장’ 편의 주인공인 남지영이 “나의 현실적 모습 그 자체”²⁰⁾라고 했던 작가의 발언도 여기에 한몫했다. 작가를 연상시키는 자전적 화자이자 인물로서 남지영은 ‘시장’ 편에 직접성의 효력을 더하며, 일상의 에피소드들을 직조해낸다. 그녀를 축으로 한 평범한 직장인인 남편 기석과 생활력이 강한 어머니, 아이 둘을 지닌 부르주아 지식계급의 범속한 가정사를 배경으로 한국전쟁 직전의 일상이 ‘시장’ 편의 출발을 이룬다.

유다를 짓 없는 부르주아 지식계급의 일상을 살아가던 그녀가 38선 접경

적을 배반하는 낭만주의자로 환원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19) 전장과 시장을 대위법적 구성이 아닌 대립 구도로 바라보는 기존 해석과 평가는 전장보다 시장을 우위에 두는 가치의 위계화에 입각해 있다. 한점돌, 『〈시장과 전장〉과 아나키즘』과 박은영, 『〈시장과 전장〉의 생존의 서사』, 토지학회 편저, 『박경리와 전쟁』, 마로니에북스, 2018 등이 대표적이다. 전장과 시장의 대립이 아니라 대위법적 구성을 지적한 드문 견해로는 유종호, 『여류다움의 거절』, 조남현 편, 『박경리』, 서강대학교출판부, 1996을 들 수 있다. 여기서 그는 남지영과 하기석의 이야기와 하기훈과 이가화의 이야기가 나란히 펼쳐지는 대위법적 전개를 소설적 특징으로 꼽는다.

20) 송호근, 『삶의 연민, 한의 미학』, 『작가세계』, 1994.8, 52쪽.

의 연안으로 떠나는 행위는 좁게 보면 이 일상과의 분리이지만, 넓게 보면 여전한 일상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녀의 내면에 자리했던 불만과 공허는 사라지지 않은 채 그녀를 짓누르고 있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임경순은 “가족인 만큼 갈등이 없을 수 없지만, 지영의 주변 환경은 평탄하다고 할 수 있”음을 언급하며, 무엇보다 그녀를 괴롭히는 것이 다른 “특별한 무엇이 아닌 일상 그 자체”임을 적시한 바 있다. “일종의 결벽증”을 동반한 “사소하지만 완강하고 끈질긴 흐름으로 지속되는 일상”²¹⁾이 그녀를 못 견디게 하는 불만의 원천이라는 것이다. 임경순의 말마따나 일상에 대한 지영의 거부감은 누구나 느낄 법한 감정의 동요를 넘어서 있다. 이는 “손에 묻은 끈적끈적한 송진”의 구체적이고 강렬한 불쾌감으로 표출되면서, 지영의 연안 행에 내적인 뒤틀림(사실성)을 부여하게 된다.

해방이 되고 어머니가 올라오셔서 우리는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어쩌면 불행하게도 당신하고 어머니는 뜻이 맞아 살림은 재미나게 되어갔습니다. 말수가 적었습니다만 강한 생활 의욕을 비롯해서 모든 면에 있어서 어머니와 당신은 몹시 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오시면서부터 집에서 손님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후, 우리는 서울로 이사 갔었어요. 거기서 당신은 저를 양재학교에 넣어주었습니다. 일주일도 못 다니고 전 그만두었고 우린 인천으로 다시 이사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저를 국민학교에 나가라 했어요. 전 국민학교에 나가서 육 개월 동안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당신은 저를 A대학에 보내주셨어요. 참 고마운 마음이지요.……

그러나 염치나 도덕 같은 것은 빼놓고 오늘은 이야기하렵니다. 당신에게 염치없

21) 임경순, 『유토피아에 대한 몽상으로서의 이념』, 『한국어문학연구』 45, 2005, 277쪽. 임경순은 이 논문에서 일상의 두 얼굴이 극대화된 채로 제시될 뿐 내적 극복과 통합을 보여주는 데는 실패했다고 본다. 지영의 완강한 일상에 대한 극도의 거부감이 전쟁을 계기로 무화되고, 오로지 생존의 급박함에 쫓겨 일상을 전적으로 긍정하는 양극단을 오간다는 것이다. 이는 내면의 전쟁을 제대로 치르기보다 서둘러 수습하는 듯한 지영의 모습으로 인해 설득력을 지닌다. 하지만 당면한 전쟁이 근대의 여자 개인 지영의 전쟁이기도 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재고의 여지가 있다. 자격 획득을 겸한 그녀의 귀환 행은 달라진 위치만큼이나 일상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자기의 위치를 되찾는 인정 투쟁을 뜻하지 않게 수행한 그녀에게 일상은 외적 권위와 규율의 억압적 체계로 머물기보다 내면적 각성과 재통합의 계기가 되는 근대 시민의 필수적 요소로 재정위된다.

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에게도 마찬가지지요. 어머니는 다른 어머니보다 좋은 사람이며 오직 저 혼자를 위해 사셨고 또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요. 우리의 생활은 어머니의 철저한 경제 관념으로 단단해졌고 어느 모로나 행복하게 보이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행복한 가정에 제가 차지할 자리는 없었습니다. 오 년 동안의 결혼생활에서 당신하고 저하고 극장에 한 번밖에 간 일이 없었다는 사실과 꽃병 하나 저의 손으로 사 들고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은 생활을 잃어버린 불행한 여자의 무관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것이 지극히 건실한 생활 태도라 보았고 또 한 저에게 강요했습니다.(152-153)

11장 「전야」의 일부분이다. 위 장면이 시사하듯이, 11장 「전야」는 지영의 편지글이 전체를 구성하는 특색을 지니고 있다. 남편 기석의 “두 번이나 주신 편지”(146)에 대한 응답인 썸인 지영의 편지는 연안 행을 택한 이유를 그녀의 입장에서 상세하게 전한다. 그 핵심 전언은 “집에서 손님이 되고 말았습니다”이다. “어느 모로나 행복하게 보이는 가정”이 실상 그렇지 않았음을 항변하며, 그녀는 이 “행복한 가정에 제가 차지할 자리는 없”었음을 주지시킨다. 이는 “강한 생활의욕을 비롯해서 모든 면에 있어 어머니와 당신은 몹시 닳은 사람들”이라는 차별성을 두드리지게 한다. “어머니와 당신”이 공히 지닌 “건실한” 생활 태도는 “오 년 동안의 결혼생활에서 당신하고 저하고 극장에 한 번밖에 간 일이 없었다는 사실과 꽃병 하나 저의 손으로 사 들고 들어오지 않”은 “생활을 잃어버린 불행한 여자의 무관심”을 낳았을 뿐이다. 이 부재와 결핍의 초상은 프랑코 모레티(Franco Moretti)가 말했던 근대 부르주아 문화의 자유로운 개인에 미치지 못하는 그녀의 입지를 반영한다. 말하자면 외부의 권위와 내부의 충동을 자신의 내면으로 재통합하여 판단과 행동의 준거를 스스로 정립하는 자유로운 개인으로서 아직 서지 못한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²²⁾

22) 프랑코 모레티(Franco Moretti), 성은에 옮김, 『세상의 이치』, 문학동네, 2005, 44~45쪽. 모레티의 견해를 살리자면, 지영은 남성 시민을 중심으로 자유로운 개인의 초상이 구축되어온 근대 부르주아 사회의 규범과 관행에 맞서는 ‘문제’적 여자 개인을 육화한다. 전쟁의 극한 상황이 초래한 기회와 위협을 안은 채 그녀는 남성의 전유물이던 근대 시민권을 획득하는 여자 오디세이로 모험 길에

그녀가 어머니와 남편을 싸잡아 “당신들”(156)로 지칭하며, 내적인 거리감을 토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손수건 한 장도 저 자신이 선택하지 못할 정도였다면 그것은 한 가정의 주부로서는 물론 성숙한 한 사람으로서는 자격을 잃은 꼴”인 이른바 여자 개인 지영의 충족되지 않은 자의식의 발로였던 셈이다. 이것이 “6월 24일 밤이에요. 토요일입니다”(154)의 임박한 전쟁과 맞물리며 향후 서사 전개상의 의미심장한 변화의 계기를 창출한다. 내일이면 닥칠 전쟁만큼이나 그녀가 맞게 될 인생의 ‘전야’로써 그러하다. 이런 점에서 지영의 연안 행이 지닌 의미는 전쟁 발발로 귀환하게 되는 그 역코스의 도정으로 인해 더한층 중요성을 띠게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38선과 인접한 연안의 지리적 특성과 결부된 당면한 전쟁은 그녀 홀로 이 사태에 맞서야 할 필연성을 부과하기 때문이다. 떠밀리듯 도망쳐온 연안 행과 대비되는 귀환 행은 적극적인 홀로서기를 동반하는 그녀의 ‘(불완전한) 통합-분리-재통합’의 여정으로 자리매김한다.

한국전쟁의 파국 속에서 가능해지는 일상적 삶의 해체와 파괴는 지영의 어머니와 남편 기적이 중심이던 집안의 질서와 규범을 재편성할 여지를 열어 놓는다. 이런 맥락에서 지영의 귀환 행은 “저의 위치를 되찾을 권리”(153)에 상응하는 고난과 역경의 길이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유로운 개인에 미달하는 결핍과 부재를 만회할 입사식을 뒤늦게 치르는 근대 부르주아 사회의 지연된 오디세이(Odyssey)로 그 시험대에 올랐기 때문이다. 그녀의 귀환 행이 두 장에 걸쳐 이어지면서, 위기 시마다 그녀의 빠른 판단과 결정이 부각되는 것도 이 오디세이로서의 여정에 기인한 바 크다. 중간에 뒤쳐진 연안의 동료 선생인 정혜숙은 물론이고 김인숙을 이끌어가는 실질적인 주체는 다름 아닌 지영이다. 소극적이고 내성적이던 그녀가 귀환 행에서 보이는 집념과 결단력은 정혜숙과 김인숙에게서는 찾기 힘든 변별적 표지가 되어 자유로운 개인으로 탈바꿈해가는 그녀의 변모를 담보하게 된다. 온갖 고초와 시련 끝에 서울에 도착한 지영은 예전과는 확연하게 달라진 모습으로 15장 『피난

길』 이후의 장면들을 이끌게 되는데, 이는 연안 행이라는 피난처를 찾아야 했을 만큼 주도적이던 남편 기석과 어머니의 미혹한 처신과 반비례하는 실질적인 가장으로서 지영의 변신을 매개하고 있다.

특히 기석의 어리석은 행동과 판단은 공산주의자 이민의 말에 끌려 공산당 입당원서를 내는 사건에서 정점에 달한다. 이는 곧 그가 이전처럼 집안을 이끌어갈 능력을 상실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전장’ 편의 기훈이 ‘시장’ 편에 등장하는 드문 두 번의 에피소드는 지영과 만난다는 사실에 더해 기석의 판단 착오와 그 후과를 경고한다는 차원에서 더욱 긴요하다. 기훈은 기석의 입당원서 제출이 초래할 섬뜩한 앞날을 예언하는 이틀테면 제라르 쥬네트(Gérard Genette)가 이야기한 ‘미리 알림’(prolepses)으로 기능하고 있다.²³⁾ “평화 시절이라면 가장 모범적인 때 부르주아의 생활신조”가 되겠지만, 전쟁과 같은 비상시에는 “그것이 조금만 흔들려도 너는 개죽음을 하”게 되리라는 운명의 예언적 실현과 관련된 전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너 자신의 보존을 위해 네 가족들의 보존을 위”(270)해 자중하라는 하기훈의 당부는 예상치 않은 파장을 남긴다. 뒤이어 벌어질 기석의 투옥과 죽음 및 그로 인한 남은 가족들의 위기와 지영의 고군분투는 그의 말을 일종의 프롤로그로 되미추기 때문이다.

서사의 후반부에 이름으로만 남게 되는 기석의 부재와 더불어 지영의 생존 투쟁(살아남기)이 본격화된다. 하지만 그녀의 이 같은 생존 투쟁은 뜻하지 않은 기석의 실종 속에서, 낭만적 사랑의 서사를 동시에 가동케 된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전술했다시피 지영은 “처음에는 반발심, 두 번째는 저의 명예 혹은 결백을 지키기 위해”(149) 기석과 결혼했던 과거를 지니고 있다. 그녀는 기석과 화학적 결합을 이루지 못한 채 여전한 이질감을 안고 살아가던 상태였다. 그런데 기석이 전쟁의 와중에 사라지고 나서야 지영은 기석에 대한 사랑을 재발견하는 낭만적 사랑의 주체로 거듭난

23) 제라르 쥬네트(Gérard Genette), 권택영 옮김, 『서사담론』, 교보문고, 1992, 65쪽. 미리 알림과 미리 언급함은 일반적으로 텍스트에서 그때는 하찮은 씨앗에 불과하고 심지어 잘 알아차릴 수조차 없지만, 씨앗으로서의 이 예언의 중요성은 이후에야 드러나게 된다고 쥬네트는 설명하고 있다.

다. 남편 기석이 곁에 없다는 데서 비롯되는 상실감은 낭만적 사랑의 열정과 동경을 불러일으키며, 생존 투쟁에 낭만적 사랑의 서사를 덧입히기 때문이다. 지영의 이러한 낭만적 사랑의 서사는 일면 상대가 없어지고 나서야 뒤늦게 그 소중함을 안다는 식의 통속적 멜로드라마의 속성을 공유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남편 구명의 절박성을 내재한 낭만적 사랑의 의미망은 그녀가 전쟁 통의 속악한 현실을 비껴갈 자양분을 제공함은 물론 아래 예문에서 드러나듯이 여느 전쟁미망인과 다르지 않은 억척 어母的 삶에 사랑의 환상을 깬 페넬로페의 형상을 부조하게 된다.

비늘을 놀리는 손과 그 독백이 똑같이 되풀이된다. 아들이 오고 불도 켤 수 없는 -초도 없었지만- 방에서, 바깥의 눈이 반영되어 희미한 밝음 속에서, 지영은 손잡작으로 뜨개질을 한다. 아이들도 잠이 들고 윤씨도 코를 곤다. 지영은 갑자기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인다. 분명히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난다. 지영은 미친 듯 눈길을 쫓아간다.

“여보! 당신이요?”

아무 소리가 없다.

“여, 여보! 당신 아니요?”

지영은 손이 짹짹 들러붙는 쇠 문고리를 벗기고 문을 연다. 한없이, 한없이 넓은 눈의 별판이 뻗어 있을 뿐이었다. 멀리서 한강을 건너는 중공군의 트럭 소리가 아슴푸레 들려온다.(443)

남은 가족들이 다 잠든 밤에 홀로 불을 밝히고 있는 지영의 모습은 우울한 서정을 자아낸다. “한없이, 한없이 넓은 눈의 별판”만큼이나 아련한 세계가 전쟁의 초사실주의를 흔들며 탐입하는 순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화롯가에서 옷감을 짜면서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던 페넬로페처럼, 그녀는 “손잡작으로 뜨개질”을 하며 남편의 부재를 견뎌내는 중이다.²⁴⁾ 이 애타

24) 박경리는 특정한 상황에 놓인 여성 인물의 감정과 심리의 동요를 뜨개질로 표현하곤 했다. 『토지』의 인실과 『표류도』의 강현희도 그러하거나 박경리 자신도 『밤』이라는 시에서, 시적 화자의 목

는 심정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의 환청을 듣기도 하고, “쇠 문고리를 벗기고 문을 여”는 무위한 행동을 반복하게도 한다. “팔다리가 다 떨어지고 몸뚱어리만이라도 돌려준다면” “깡통을 들고 밥을 빌어다가 먹여 살”(443)리겠다고 하는 지영의 전례 없는 갈증도 마찬가지이다. 그의 부재가 낳은 절대적 헌신과 희생의 다짐은 그녀가 거부해왔던 스위트홈의 가정부인을 꿈꾸게 하면서, 남은 가족들의 생존 위기와 뒤섞인 낭만적 사랑의 환각과 서사를 빚게 했음을 위 장면은 여실히 보여준다.

그녀가 영유하는 낭만적 사랑의 서사는 “반동은 다 죽여라!”를 이어 “빨갱이는 모조리 죽여라! 새끼도 애미도 다 죽여라! 씨를 말려야 한다!”는 전장의 보복 살육 및 “재빨리 벌어진 시장에는 레이션박스의 물건들이 쏟아져 나”(317)오는 전시 혼란 통의 잇속과 물욕의 시장과도 거리를 두게 한다. 따라서 그녀의 생존에 기입된 낭만적 사랑의 서사는 기존 논의의 제한된 관심사를 뛰어넘는 바가 있다. 전장 편과 달리 시장 편을 관통하는 지영의 생존기는 다른 서사를 가려버리는 측면이 없지 않지만, 생존 자체가 지상과제인 일차원적 세계는 동물의 삶과 밀착되는 가공할 만한 위험을 내포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그녀의 생존기와 교직하는 낭만적 사랑의 서사는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 앤서니 기든스(Anthony Giddens)가 말했듯이 낭만적 사랑의 서사는 기존 현실을 탈피하는 부정성의 계기를 배태하기 때문이다.²⁵⁾

전시 자본주의 ‘시장’에 대한 지영의 변화되는 시선이 그 방증이다. 전쟁전의 심성이 투사된 “페르시아의 시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축제같이 찬란한 빛이 출렁이고 시끄러운 소리가 기쁜 음악이 되어 가슴을 설레게 하”고, “더러는 싸움이 벌어지지만 붉은 불빛이 내려앉은 목로점에서 화해술

소리를 빌려 “밤이 깊는데 잠이 안 올 때 바느질이나 뜨개질을 했으면 하고 생각한다”고 쓰고 있기 때문이다. 뜨개질의 젠더 심성과 특질은 고전적 여성상을 변주하며 이야기하는 여자의 형상을 주조한다. 뜨개질하듯이 이야기를 짜는 유비 연상이 페넬로페와 세헤라자데를 겹친 여성 저자의 원형을 정초케 하는 것이다. 팜 모리스(Pam Morris), 강희원 옮김, 『문학과 페미니즘』, 문예출판사, 1997, 103~104쪽은 페넬로페를 여성 저자의 은유로 삼아 여성 문학의 가능성과 곤경을 타진하고 있기도 하다.

25) 앤서니 기든스(Anthony Giddens), 배은경·황정미 옮김, 『현대사회의 성·사랑·에로티시즘』, 새물결, 2001, 90쪽 참조.

을 마시느라고 떠들썩, 술상을 두들기며 흥겨워”(130)하던 그 낭만은 이미 사라지고 없기 때문이다. 물론 전시 초 인민군이 점령한 서울 거리에 선 장터에도 “음약은 있다.” 그리고 “장난감 파는 가게에 인민군들이 서 있고 그들이 돌아갈 때 누이와 동생과 아들과 딸들에게 선물할 장난감도 고”(239)르는 인간적 체취와 예상치 않은 만남이 교차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하지만 기적이 사라진 전쟁의 격화 속에서, 시장은 “질게 화장한 양공주가 쓰러진 가로수 옆에 서서 지나가는 유엔군에게 웃음을 던”지는 물화된 성과 자본의 매매춘이 일상화된 부정성의 공간으로 다가올 뿐이다.²⁶⁾

양공주에 대한 지영의 경멸 어린 시선이 담긴 “빨리도 나왔지”(329)는 인민군 치하의 여의사가 설파하는 “여러 가지 죄악도 죄악 같지가 않고 시는데 군더더기가 없어지고 빨가벗은 것 같은” “젊은 여인이 가슴을 드러내고 식량을 이고 와도 부끄러운 때”가 아닌 “영혼과 순결이 무슨 소용이예요? 모두 동물이 되어”(373) 버린 전시의 별거벗은 생존을 노정한다. 오로지 생존 자체가 지상과제가 되어버린 일차원적 세계가 전시 ‘시장’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것이다. 이러한 생존(삶)의 절대시는 전향과 변절을 통해 “정직한 동물”의 삶을 택했던 장덕삼과도 맞닿는 지점이다. 지영 역시나 생존 투쟁에 누구보다 적극적이라는 점에서, 그녀는 곧 장덕삼의 반대이기도 하기 때문이다.²⁷⁾ “시는 자유는 소중”(549)하다면서 “정직한 동물”의 형용모순을 기꺼이 감수했던 장덕삼과 그녀의 거리는 실로 가깝기만 하다.

하지만 그녀는 장덕삼과 달리 낭만적 사랑의 서사로 이 “정직한 동물”로

26) 시장에 대한 지영의 환상과 그리움만을 선택적으로 인용해 전장에 맞서는 ‘시장’의 의미를 과도하게 부각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가령 전시 시장은 유엔군의 복상과 납화에 따라 서기와 접기를 반복하는 자본주의의 최전선이자 생존 투쟁의 적나라한 현장이며, 식량을 좌지우지하는 농부의 위약과 “빨리도 나왔지”에 드러난 양공주에 대한 위화감 등이 뒤섞인 생존의 민낯을 어쩔 수 없이 대면케 하기 때문이다.

27) 지영은 남편의 부재에도 “살고 싶다 내 자식들, 내 어머니, 당신은 죽어도 난 죽지 못해요!”를 동반한 “밝혀도 밝혀도 뺏어가는 잡초 난 잡초야!”의 강인한 생명력을 표출한다. 하지만 이러한 생애의 집착과 의지는 “이렇게 신비하게 살 수 있는 왜 그 힘이 그에게는 미칠 수 없었을까요? 그냥 그냥 없어지고, 없어지고……”(447)의 낭만적 사랑의 서사로 굴절되며 후경화된다. 원초적 생명애의 함몰을 지연하고 저지하는 이 낭만적 사랑의 역능으로 인해 그녀는 끝까지 현실과 이상의 팽팽한 긴장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의 추락을 가까스로 방어해낸다. 하기훈이 이가화와의 낭만적 사랑의 서사로 고결한 휴머니티를 지닌 지식인 빨치산으로 남는 것과 동계를 이룬다. ‘전장’ 편을 변주하는 ‘시장’ 편의 대위법적 구성은 동물로 추락하지 않으려는 지영의 이 ‘인간다운 생존’의 고투에 힘입고 있음은 물론이다. ‘전장’ 편의 오미주라 할 지영의 “얼굴을 들고 하늘을 올려다”(436)보는 장면은 가히 하기훈을 연상시키기에 충분하다. “총을 권 채 하늘을 올려다”보는 하기훈과 짝을 이루듯 그녀도 기석의 부채를 온몸으로 껴안으며 “하늘을 올려다본다.” 하기훈과 지영이 올려다보는 하늘이 같을 리 없지만, 이들은 실제 시공간 상의 차이와 무관하게 자신의 갈 데 없음을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으로 육화하고 있는 것이다.

두 사람을 잇는 연쇄 효과는 지영의 다음과 같은 울부짓음을 “시장과 전장이 서로 등을 맞대고 그 사이를 사람들은 움직이고 흘러”(246)가듯이, 그렇게 시장과 전장의 “사이”를 가로질러 하나의 장면으로 녹아들게 한다. “아무도 오지 말라! 이 땅에, 아무도 오지 말라! 내 땅에! 내 혼자 자식들하고 얼음을 깨어 한강의 붕어나 잡아먹고 살란다. 북극의 백곰처럼 자식들 데리고 살란다! 아무도 오지 말라! 아무도!”(436-437)는 곧 갈 곳 잃은 자들의 단발마적 외침이 되고 있다. “무한히, 무한히 긴 침묵의 대지”를 지평 삼아 아무도 오지 말기를 오직 내 땅에서 내 혼자 자식들하고 한강의 붕어나 북극의 백곰처럼 살고 싶”다는 그녀의 바람은 비록 실현되지 못했지만 하기훈이 이가화와 꿈꿨던 소박한 정경과 이어지며, 긴 여운을 남기게 된다.

“짜리나무 울타리에 저녁 짓는 연기가 나구, 농부는 외양간에 소를 몰아넣고 흙 묻은 옷을 툭툭 털겠지. 꽃고추를 넣은 된장찌개 냄새가 부엌 쪽에서 나더군. 아낙이 밥상을 들고 나오고……가화는 그런 아낙이 되고 나는 그런 농부가 된단 말이야”(555)는 과거의 토착적 세계에 기댄 대항(대안)-비전(counter-vision)으로 작동한다. 아무도 침범하지 않는 자족적 세계에 대한 회구와 염원의 표식이기도 한 이 원풍경은 차크라바르티(Dipesh Chakrabarty)가 말했던 낭만적/심미적 내셔널리티의 유토피아적 계기를 함축하고 있다.²⁸⁾ 자기 땅에서 남의 전쟁으로 화해버린 한국전쟁의 참화는 조화롭고 유

기적인 삶의 이상을 이 원풍경에 담아내며, 현실 너머를 일별케 한다. 이를 단순히 과거 퇴행이나 복고로 볼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텐데, 상실한 혹은 상실했다고 가정하는 과거를 미래로 기투하는 이른바 역사적 현재성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낭만적 사랑의 서사와 교직하는 이러한 현실 비판의 대항(대안) - 비전은 박경리가 글쓰기의 영도를 통해 붙잡고자 했던 “수많은 인물에게서 휴머니티를 열망”하며, “사랑은 그것이 어떤 형태나 성질이든 결코 존엄에 손상을 주지 않”는다는 “철저한 인간주의자”²⁹⁾의 면모와도 상통하는 것이라.

4. 순애자들의 응성거림과 고결한 휴머니티의 시계열화 - 결론을 대신하며

“부양가족을 이끌고 6·25를 질러나온 여자라면 누구나 생활이, 생존이 어떤 것인지 화인 같이 짝혀 있”(56)으리라는 박경리의 발언에 실린 생존의 엄중함은 재론을 요하지 않을 정도로 그녀의 삶을 관통했다. 이 생존의 엄중함이 『시장과 전장』을 탄생시킨 근저의 동력이었음도 부인할 수 없다. 전쟁 미망인의 삶에 대한 그녀의 천착은 이러한 자신의 살아온 삶의 투영이기에 그만큼 강한 필진성을 띠고 소설 세계 전반을 지배한다. 생존과 직결된 생명 사상이나 의식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될 수 있었던 배경이기도 하다.

하지만 생존이 곧 생명 사상과 의식으로 등치되는 데 따르는 비약이나 무리도 없지 않다. 왜냐하면 박경리에게 생존은 절제되는 한해서만 그 가치를

28) 차크라바르티는 민족주의와 미학적 상상의 관계를 다루면서, 현실적인 것의 프레임을 대체하는 데 토착적 형상이 지닌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타고르의 시와 산문에 나타나는 낭만적/심미적 내서 널리티에 대해서는 디페시 차크라바르티(Dipesh Chakrabarty), 김택현·안준범 옮김, 『유럽을 지방화하기』, 그린비, 2014, 344~358쪽이 유용하다. 또한 한금윤, 『박경리의 『시장과 전장』에 나타난 공간과 삶으로서의 은유』, 『한국근대문학연구』 21, 2020은 『시장과 전장』을 다양한 은유로 재해석하는 가운데 자연 친화적 공간을 존재론적 은유로 접근한다. 생태학적 상상력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되는 존재론적 은유는 이 글이 말하고자 하는 생명 사상에 대한 비판적 관점과는 결을 달리한다.

29) 박경리, 『나의 문학적 자전』, 『꿈꾸는 자가 창조한다』, 나남, 1994, 148~149쪽.

띠고 있고, 한도를 넘어선 생존은 이념의 무용함에 비견되는 비판적 소구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존에 입각한 생명 사상이나 의식의 과도한 상찬과 의미 부여는 『시장과 전장』을 뒷받침하는 고결한 휴머니티의 작용을 놓치기 쉽다. 예컨대 박경리의 다음과 같은 언명에서 드러나는 고결한 휴머니티의 면모가 그러하다. “해방 직후 나는 미군과 함께 다니는 통역관을 흔히 보았고 적산가옥에 든 사람들을 쫓아내고 집을 차지하는 이웃의 통역관을 본 일도 있어요. 하기가 그 시절 그 따위 이권의 탈취쯤이야 대단한 것도 아니었습니다만 그 두 개의 얼굴이 문제였지요.……그 당시 영어에 능통했다면 두말할 것도 없이 지식인이요, 소위 지적 귀족이겠는데 어째서 귀족적 일면만을 지니지 못했을까요”³⁰⁾라고 일갈했던 귀족적 일면과도 상응하는 고결한 휴머니티는 그녀가 지키고자 했던 최소한의 방어선으로 기능한다.

박경리가 귀족적 일면으로까지 칭했던 이러한 고결한 휴머니티의 소유 여부가 『시장과 전장』을 관통하고 있음을 이 글은 되짚었다. 이를 위해 2장에 서는 『토지』의 전미래로 장덕삼의 역할과 위상이 재조명되었다. ‘전장’ 편을 해명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성을 띠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장덕삼은 그에 값하는 주목을 받지 못했다. 장덕삼을 매개로 하기훈은 이가화와 낭만적 사랑의 주체로 거듭날 수 있었거니와 더 중요하게는 변절하지 않는 ‘지식인 빨치산 순애자’로 남을 수 있었다.³¹⁾

‘전장’ 편의 하기훈과 대위법을 이루는 ‘시장’ 편의 지영 또한 남편과 어머니가 사라진 집안의 실질적인 가장으로 전쟁미망인의 억척 생존기를 노정하지만, 남편 기석의 부재가 빚어내는 낭만적 사랑의 주체가 됨으로써 일차원적인 생존을 가까스로 비껴간다. 지영의 연안 행을 강제했던 “저의 위치를

30) 박경리, 『예의』, 『Q씨에게』, 솔 출판사, 1993, 315쪽.

31) 낭만성을 담보한 하기훈의 휴머니즘이 역으로 지식인 빨치산의 역사적 이념과 실상을 가리는 추상화·적대화와 연결될 수 있음을 지적한 심사위원의 고견이 있었다. 냉전의 이념자원으로 휴머니즘이 동원된 역사적 현실에 비추어 적절한 문제제기가 아닐 수 없다. 필자 역시 이 점을 고려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그리고 박경리의 『시장과 전장』이 내보이는 휴머니즘이 냉전의 자유 휴머니즘과 상통하는 측면을 갖고 있음도 사실이다. 하지만 필자는 전향과 귀순으로 공산주의에 대한 환멸과 자유 휴머니즘을 설파하는 반공주의 전략을 그대로 추수하지 않은 박경리의 도전을 더 높이 사고 싶었다. ‘산사람’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탈주하는 하기훈의 드문 ‘지식인 빨치산’ 형상은 이후 빨치산 서사와 연동하는 지적 영감과 자극을 주었음을 또한 기억해둬야 한다.

되찾을 권리”는 생존 자체가 목적이 아닌 ‘인간다운 생존’에 있음을 3장은 드러내 준다. 한국전쟁의 파국은 무엇보다 생존을 절대시하는 조건을 창출했지만, 이 순애자들의 탈주하는 신체 역능은 “시장과 전장이 서로 등을 맞대고” 있는 “그 사이”를 가로질러 고결한 휴머니티를 새겨놓는다. 하늘을 올려다보는 지영과 기훈의 오버랩 장면은 토속적 서정의 환각과 어울려 대항(대안)-비전으로 화하고 있음을 상기하는 것으로 이 글의 결론을 갈음한다.

■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박경리, 『띠엄띠엄 읽고 갈겨 쓴 비평일기』, 손세일 편, 『한국논쟁사』 II, 1980.
 _____, 『예의』, 『Q씨에게』, 솔 출판사, 1993.
 _____, 『나의 문학적 자전』, 『꿈꾸는 자가 창조한다』, 나남, 1994.
 _____, 『토지』 19, 마로니에북스, 2012.
 _____, 『토지』 20, 마로니에북스, 2012.
 _____, 『시장과 전장』, 마로니에북스, 2013.

2. 논문

- 공임순, 『(대하)역사소설 『토지』와 역사적 개인의 젠더 역학』, 『아시아여성연구』 57, 2018.
 김미영, 『박경리의 『시장과 전장』에 나타난 낭만성과 숭고』, 『한국문예비평연구』 52, 2016.
 김복순, 『'지식인 빨치산' 계보와 지리산』, 『인문과학연구논총』 22, 2000.
 김양선, 『한국전쟁에 대한 젠더화된 비판의식과 낭만성』, 『페미니즘 연구』 8, 2008.
 김외곤, 『전후세대의 의식과 그 극복』, 『문학사와 비평』 1, 1991.
 박영준, 『빨치산』, 『신천지』, 1952.5.
 백낙청, 『피상적 기록에 그친 6·25 수난』, 손세일 편, 『한국논쟁사 II』, 1980.
 송호근, 『삶에의 연민, 한의 미학』, 『작가세계』, 1994.8.
 안정숙, 『문화시평』, 『창작과비평』, 1990년 가을.
 이해령, 『빨치산과 친일파』, 『대동문화연구』 100, 2017.
 임경순, 『유포피아에 대한 몽상으로서의 이념』, 『한국어문학연구』 45, 2005.
 한금윤, 『박경리의 『시장과 전장』에 나타난 공간과 삶으로서의 은유』, 『한국근대문학연구』 21, 2020.

3. 단행본

- 김복순, 『페미니즘 미학과 보편성의 문제』, 소명출판, 2005.
 김윤식, 『박경리와 토지』, 강, 2009.
 김치수, 『박경리와 이청준』, 민음사, 1982.
 김 현, 『행복한 책읽기』, 문학과지성사, 1992.
 조남현 편, 『박경리』, 서강대학교출판부, 1996.
 토지학회 편저, 『박경리와 전쟁』, 마로니에북스, 2018.
 디페시 차크라바르티(Dipesh Chakrabarty), 김택현·인준범 옮김, 『유럽을 지방화하기』, 그린비, 2014.
 르네 지라르(Rene Girard), 김치수·송의경 옮김, 『낭만적 거짓과 소설적 진실』, 한길사, 2001.
 앤서니 기든스(Anthony Giddens), 배은경·황정미 옮김, 『현대사회의 성·사랑·에로티시즘』, 새물결, 2001.
 에마누엘 레비나스(Emmanuel Levinas), 김도형 외 옮김, 『전체성과 무한』, 그린비, 2018.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 진태원 옮김, 『법의 힘』, 문학과지성사, 2004.
 제라르 쥘네트(G rard Genette), 권택영 옮김, 『서사담론』, 교보문고, 1992.

- 주디스 버틀러(Judith Butler), 김윤상 옮김, 『의미를 체현하는 육체』, 인간사랑, 2003.
팸 모리스(Pam Morris), 강희원 옮김, 『문학과 페미니즘』, 문예출판사, 1997.
프랑코 모레티(Franco Moretti), 성은애 옮김, 『세상의 이치』, 문학동네, 2005.

The catastrophe of the Korean War and the non/nationality of a beloved against a martyr

– A Study on Park Kyong-ni’s *The Market and War field* –

Kong Im Soon*

This paper focuses on the fact that ‘intellectual partisan’ genealogy of the 1980s and early 1990s, which exemplified the potential explosive power of the partisan narrative, is seen in *The Market and War field*. To this end, this paper chose a ‘reading backwards’ method from Land to The Market and War field instead of a straight and developmental perspective. In this process, unlike the existing limited interests, Jang Doek-sam is newly reexamined. He is also the person who resembles Choi Yoon-guk’s post-liberation version. His path of ‘Korean student soldiers-North of China(北地)-Yan’an’ overlaps with the journey of Choi Yoon-guk’s ‘Korean student soldiers-China-Palogueun’ and embodies a branch of Intellectual Partisan from the so-called landowner (bourgeois) class who was Korean student soldiers to be.

But more importantly, Jang Duk-sam is positioned as an intermediary that drives and sparks the romantic love of Ha Gi-hoon and Lee Ga-hwa through romantic idealism. Through him, Ha Ki-hoon can be reborn as the subject of romantic love with Lee gah-wa. Above all else, he can remain as a ‘intellectual partisan with a human face for a pure love’ who deflects the one-dimensional survival of ‘honest animal’ which is the price of Jang Duk-sam’s conversion

* Humanities Research Institute of Sogang University, Academic Research Professor

and treachery. This differentiation is connected with Nam Ji-young of ‘market’ side because she also manages to distance herself from the one-dimensional survival of Jang Deok-sam thanks to the romantic love narrative created by the absence of her husband Gi-seok despite the active struggle for survival. Chapter 3 reveals that Nam Ji-young’s “right to regain my position” means that survival itself is not a goal but a ‘human survival’. The conclusion in Chapter 4 is as follows. It is a critical consideration that the excessive praise or meaning of survival based on life thought can overlook the action of noble humanity and the struggle and struggle of these beloveds toward human survival created a counter(alternative)-vision of romantic illusion.

Key words: The Market and War field, Park Kyong-ni, Korean War, Reading backwards, Martyr, Beloveds, Noble humanity, Korean student soldiers, Jang Doek-sam, Intellectual partisan, escaping body, Contrapuntal construction, Counter-vision of lyric locality